# 2016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2차)

## 1. 회의 개요

□ 일 시 : 2016. 1. 7.(목) 17:00~22:00

□ 장 소 : 교수회관 5회의실

□ 참 석 : 위원 9명 중 9명 참석

○ 참석위원

- 외부위원 및 동문 : 백창현(위원장), 양호경(부위원장), 박광우 위원
- 학 교 대 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재정전략실장
- 학 생 대 표 : 김보미, 이동현, 홍지수 위원

## 2. 회의 내용

□ 안건 설명

○ 2016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

○ 2016년도 등록금 책정(안)

□ 회의 내용

○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

○ 전차 회의록 낭독

○ 협의추천 위원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

- 학 생 대 표 : 학교측에서 위원 9명 중 9명 참석이라고 개회를 했는데, 1차 회의에서 백창현 위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.
- 학 교 대 표 : 학생측 의견에 동의함. 위원 8명 중 8명 참석으로 개회를 수정.
- 학 생 대 표 : 협의추천의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학생측에서 학

교측의 의사를 존중해주어 백창현 위원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음.

- 학 교 대 표 : 일정도 촉박하고 통상적으로 협의추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백창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함.
- 학 생 대 표 : 위원장 선출에도 충분한 논의가 우선 돼야함. 이번에는 백창현 위원의 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만, 내년도 회의 때는 보다 일찍 요청을 하여 협의추천 위원 및 위원장 선출 논의를 갖도록 하겠음.

**<만장일치로 백창현 위원을 협의추천 위원으로 합의하고 위원장으로 선출>**

**<만장일치로 학생추천 위원인 양호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>**

○ 회의자료 설명 및 등록금 심의를 위한 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토론

- 학 생 대 표 : 학교측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등록금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함. 하지만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용역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 예산의 추가지출을 막을 수 있음. 또한 장기간 고용으로 업무 역량이 높은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함으로써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.
- 학 교 대 표 : 계약직 채용은 주로 단과대학 등의 기관별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, 따라서 본부 차원에서는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임.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임.
- 학 생 대 표 : 서울대학교는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일기관이기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많은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겠지만 국고 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음.

- 학 교 대 표 : 지적한 문제의 방향성은 좋으나 국고 지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. 실질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함.
- 학 생 대 표 : 한 기관의 경우는 시설 설비를 교체하면서 교수나 학생들에게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부실공사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.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보수 등으로 지출될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.
- 학 교 대 표 : MRO 시스템의 도입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.
- 학 생 대 표 : 학생들이 예산운영에 관여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재경위원회의 학생 참여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.

○ 2016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- 학 교 대 표 : 2016년도 등록금 책정을 전년 대비 1.7% 인상으로 제의.
- 학 생 대 표 : 인건비나 공공요금과 같은 부문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발전기금의 법인회계 전입금을 통한 수입 증대를 통해 등록금 인상 억제가 가능함. 따라서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며 5% 인하를 제의함.
- 학 교 대 표 : 0.3% 인하를 제의함. 등록금 인상의 이유는 장학금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임.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방향에는 동의하기에 참고하도록 하겠음.
- 외 부 위 원 :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다면 학교 재정에 영향 없이 2.7%의 인하가 가능함. 또한 2016년 예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층적인 검토와 심의가 어려움.

- 학 교 대 표 : 학교의 재정 상황과 정부의 등록금 정책 등을 고려하여 0.33% 인하를 제의. 장학금이나 학생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음.

- 학 생 대 표 :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있으나 재정 관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음. 단순히 인하만이 아닌 제도적인 마련이 함께 필요함. 1.2% 인하를 제의하며 인하 후 학생들 스스로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음.

- 외 부 위 원 : 인하율이 크면 좋으나 냉정히 접근을 해보면 계속된 등록금 인하로 적자 누적이 커지는 것도 염려됨. 0.33% 인하도 전년 대비 10%가 인하되는 것임.

- 학 교 대 표 : 0.35% 인하를 제시함.

- 학 생 대 표 : 0.5% 인하를 제시함. 교육의 공공성에 주목해서라도 등록금을 인하해야함. 재원은 출연금 확보를 통해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함.

- 학 교 대 표 : 학교 재정운영상 0.33% 인하가 한계임.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0.35% 인하로 합의를 요청.

- 학 생 대 표 : 0.35% 인하에 합의하되 다음 2가지 약속을 요청함. 첫째, 재경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. 둘째, 다양성위원회에 대학원생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.

- 학 교 대 표 : 이를 약속할 수는 없음. 등록금 협의와 연계할 성격은 아님. 재경위원회는 법률사항이고 다양성위원회는 소수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임. 하지만 재경위원회의 학생 참여 등 요청 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음. 또한 2017학년도 등심위를 올해 11월경 조기 개최하여 단순히 등록금만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, 등록금 운영 등에 관한 학생들의 참여 방안에

대한 토론도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기제로서의 역할로 나아가도록 하겠음.

**<만장일치로 0.35% 인하에 합의>**

## 3. 회의 결과

□ 2016년도 등록금 책정(안) : 전년 대비 0.35% 인하에 만장일치로 합의

□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모임을 갖기로 합의

2016. 1. 7.